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3월 16일

2010년 중국 성(省)별 양회의
주요내용과 평가: 베이징(北京)시

김 부 용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초청연구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 2010년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개최된 베이징시 양회(兩會)에서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민생 개선, 교외지역 도시화, 개혁·개방 등이 제시되었음.

-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내수확대와 경제구조조정을 두 축으로 함.
- 내수확대 정책으로는 주민소득 증대와 새로운 소비영역 개척, 가전·자동차하향(家電汽車下鄉) 및 이구환신(以舊換新) 소비확대 정책이 제시됨.
- 경제구조조정은 중점 기능구(重點功能區)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략적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며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함.

■ 2009년 베이징시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1만 달러를 돌파하였는바, 이번 양회(兩會)보고에 서는 베이징을 세계도시로 건설하자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었음.

- 이는 베이징시가 국제경제중심, 국제기술혁신중심, 세계문화중심 및 국제활동 무대로 자리 매김하려는 것과, 외교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정치에서 발언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향후 베이징시가 새로운 단계의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안 정성, 인구나 자원 및 환경 간 모순, 도농간 발전 격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함.
-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직할시 내 진급도시(小城鎮) 건설을 가속화하여 교외지역 도시화를 촉진하고 민생 개선을 강화하며 개혁·개방도 계속 심화해야 함.

1. 2010년 베이징시 양회(兩會) 개최

■ 베이징시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와 제11회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가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개최되었음.¹⁾

– 이번 양회(兩會)에서는 정부업무보고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보고와 함께 2009년 성과와 사업 내용을 회고하고 향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음.

■ 양회(兩會)기간 최대 화두는 베이징을 세계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었음.

– 이번 양회(兩會)에서는 세계도시를 건설하자는 중장기 목표하에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조정, 도농간 조화로운 발전, 생태환경 및 민생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2. 2009년 주요 성과 및 사업 내용

가. 주요 성과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9년 베이징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표 1. 2009년 베이징시 주요 경제지표

항목	수치	전년대비 증가율
지역총생산액	11,865.9억 위안	10.1%
1인당 지역총생산액	68,788 위안(10,070 달러)	6.2%
재정수입	2,026.8억 위안	10.3%
수출입	2,147.6억 달러	-20.9%
수출	483.6억 달러	-15.9%
수입	1,664억 달러	-22.2%
도시 등록 실업률	1.44%	-0.38%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26,738 위안	9.7%
농민 1인당 순소득	11,986 위안	13.4%

자료: 『2010년 베이징시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서(2010年北京市第十三屆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上政府工作報告)』; 베이징시 200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발표(北京市2009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지역총생산액(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규모는 11,865.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여 제11차 5개년 계획의 목표치인 연평균 지역총생산액 성장률 9%를 초과 달성함(표 1 참고).

1) 본 보고서는 2010년 베이징시 제13회 인민대표대회 보고서와 제11회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1만 달러를 넘어 상하이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1만 달러를 넘게 됨.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민 1인당 순소득 증가율은 각각 9.7%와 13.4%로 농민 소득 증가율이 도시주민 소득 증가율을 초과함.

■ 신중국 성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마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

- 병력 8,000여 명, 차량 300여 대, 항공기 65대를 동원한 열병식에서 미사일과 탱크, 전차, 대포 등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하여 중국 국방의 힘을 대외에 과시함.

나. 사업 내용

■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하던 경기를 회복시켜 안정적이 고도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함.

- 정부가 309억 위안을 투자하여 정부 투자의 선두역할을 발휘하고, 토지일급개발²⁾에 1,165억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시(市) 국유자산경영관리센터를 조직하고 농업담보회사³⁾를 설립하는 등 투융자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함.
- 그 결과 연속 9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투자가 2009년 5월부터 회복세를 보 이면서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한 4,858.4억 위안을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토지일급개발 투자를 빼면 사실상 투자 증가율은 -4.1%임.
-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3.7억 위안을 지급하여 가전·자동차하향(家電汽車下鄉)과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펼친 결과 자동차 판매량이 30.8% 증가함.⁴⁾
- 다양한 주제별 판매촉진 활동을 펼치고 특색 상업구를 개조하며 농촌유통시장 건설을 가속화하여 향진(鄉鎮)시장 보급률이 72%에 이룸.

2) 토지일급개발이란 토지를 양도하기 전 정부 혹은 정부의 위탁을 받은 부동산 개발기업이 미개척 도시 국유토지와 농촌집체토지를 징수하여 건설조건에 부합되는 토지로 개발하는 것을 가리킴.

3) 『新京報』(2009. 3. 19), 「베이징시에 첫 번째 시(市)급 농업담보회사가 설립돼」. 농업담보회사는 농업 관련 대출에 담보를 제공해주는 회사로서 주요 서비스 대상은 농산물가공업, 농촌합작기구, 농업과 양식업 및 농민 창업임.

4) 가전·자동차하향과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정부의 내수 촉진 양대 정책임. 가전·자동차하향 정책은 농민 들이 특정 품목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고, 이구환신 정책은 주로 도시 주민들이 중고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신제품으로 교체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가리킴.

- 2009년 연간 수출액 483.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15.9% 감소하였으나, 전국 비중 4%를 유지함(표 2 참고).
- 대외무역발전자금을 늘려 기업이 국제시장을 안정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2. 베이징시 수출액 및 전국 비중

구분	2008년	2009년
베이징시	574.6억 달러	483.6억 달러
전국	14,285.5억 달러	12,016.6억 달러
베이징시 수출액의 전국 비중	4.0%	4.0%

자료: 중국 상무부; 『베이징시 200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발표(北京市200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베이징시 200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발표(北京市2009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경제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6대산업(전자정보, 자동차, 장비제조, 생물약, 신에너지 및 도시형 산업) 진흥계획을 시행함.⁵⁾
 - 도시형 산업은 시민의 사업과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오염이 없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노동 집약형 산업을 가리킴.⁶⁾
 -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중관촌과학기술단지(中關村科技園)에 중국 최초의 자발혁신 시범구인 중관촌국가자발혁신시범구(中關村國家自主創新示範區)를 설립함.⁷⁾
 - 첨단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중항산업단지(中航工業園)를 설립하고 석유화학공업 신재료, 디지털TV, 이동 실리콘밸리 등 산업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리저금융상무구(麗澤金融商務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상무중심구와 금융가 확대 사업을 시행함.
- 그밖에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베이징수도여행집단유한회사(北京首旅集團), 베이징수도농업집단유한회사(北京首農集團)를 재편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개혁을 실시함.

5) 『北京日報』(2009. 9. 10), 「베이징시 상무위원회에서 중점산업 진흥계획 등 사항을 논의」.

6) 施昌奎(2004), 「베이징의 도시형 산업 투자환경 최적화를 위한 대책 연구」, 『經濟界』, 1期.

7) 중관촌국가자발혁신시범구(中關村國家自主創新示範區)는 기업의 자발혁신능력을 향상시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 유명 브랜드를 창출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도출하고, 인재를 육성 및 집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3. 향후 목표와 정책방향

가. 목표

- 현재 베이징시를 세계도시로 건설하자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바, 이는 제12차 5개년 계획의 제정을 앞두고 베이징시가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계도시는 '국제 대도시의 첨단형태로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로 정의되고 있음.⁸⁾
- 세계도시는 국제경제 중심으로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큰 외교적 영향력과 국제정치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 문화 중심이자 국제기술혁신 중심이고 국제행사 무대가 되는 도시로 해석됨.
- 동시에 편리한 교통, 선진적인 교육과 과학기술 및 양호한 거주 조건을 갖춘 도시임.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뉴욕, 파리, 런던 및 도쿄가 현재 세계도시로 불림.⁹⁾

나. 주요 정책방향

- 향후 베이징이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 인구와 자원 및 환경 간 모순, 도농간 발전 격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려고 함.
- 2010년 베이징시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목표치는 9%임.
-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산업 업그레이드와 지속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수확대와 경제구조조정을 두 축으로 함.
- 동시에 교외지역 도시화를 추진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개혁·개방도 지속적으로 심화할 계획임.

8) 『第一財經日報』(2010. 1. 26), 「1인당 GDP 만 달러 돌파, 목표는 '세계도시」.

9) 『第一財經日報』(2010. 1. 26), 「1인당 GDP 만 달러 돌파, 목표는 '세계도시」.

1)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 내수를 확대시켜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도모함.

- 주민소득을 늘리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하여 소비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킴.
- 사회보장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소득분배 정책과 삼농(三農) 관련 보조정책을 수행하며, 노동자 임금을 향상시키고 지급보장체제를 건전히 하여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을 늘림.
- 가전·자동차하향(家電汽車下鄉)과 이구환신(以舊換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가전과 자동차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일반시민 및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기업의 개발과 시장참여를 가속화하고 재고주택 거래를 촉진함.
- 문화, 체육, 휴양, 헬스, 양로서비스 등 새로운 소비영역을 개척하여 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며, 올림픽도시 우위를 발휘하여 여행소비를 진작하고 관광산업을 중요한 지주 산업으로 발전시킴.
- 대형 상업무역기업이 교외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도록 인도하고 교외 현대유통망 건설을 강화하며, 향진(鄉鎮)시장, 체인 편의점 및 농자재 슈퍼마켓 등의 보급을 넓혀 교외지역 소비시장을 활성화함.
- 정부투자 700억 위안, 사회투자 1조 위안을 실현하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1%에 이르게 함.
- 민영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여 민간자본이 인프라, 시정(市政) 공공사업, 금융서비스, 첨단제조업 등 영역에 진출하도록 장려함.

■ 경제구조조정을 가속화함.

- 중점 기능구(重點功能區) 건설을 가속화하여 전략적 산업 육성을 촉진함.
- 중관춘국가자발혁신시범구(中關村國家自主創新示範區)를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중심지로 건설하며, 시범구 법규 제정, 주주권 격려, 공장 관리 등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이 혁신주체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
- 이창개발구(亦庄開發區)를 이동통신, 신에너지 등 산업이 집적된 산업거점으로 육성하며, 이창개발구(亦庄開發區)의 선두 역할을 장려하여 주변 산업기지의 발전도 함께 도모함.

- 금융가, 상무중심구 및 리저금융상무구(麗澤金融商務區) 건설을 전면 추진하여 각종 금융기구를 베이징에 유치하고 베이징을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함.

그림 1. 베이징시 3대 중점기능구



자료: 쓰촨농촌정보사이트(四川農村信息网, www.scnjjw.gov.cn)에서 가공.

-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경제발전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킴.
-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물의약, 석유화학신재료,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폭 발전시킴.
- 저탄소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녹색생산체제, 소비체제 및 환경체제를 수립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소하며, 엄격한 수자원 관리와 수돗물가격 계단식¹⁰⁾ 도입 등 각종 수자원 절약 조치를 취함.

10) 『京華時報』(2009. 12. 17), 「베이징시 내년부터 수돗물가격 계단식 도입, 저소득 계층에게는 보조금 지급」. 계단식 수돗물가격이란 정부가 규정한 기본 용수 사용량 내에서는 기본금을 부과하고 0~20%의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2배의 가격을 부과하며 20~40%의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3배의 가격을, 40% 이상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4배의 가격을 부과하는 가격 형식을 가리킴.

2) 민생 개선

■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구사함.

- 통일적인 인력자원시장과 공공취업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고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 등 보다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 취업인구 36만 명을 증가시키고 취업자가 없는 가정을 없애며 농촌노동력 7만 명을 도시로 이전시켜 취업시킴.

■ 의료보험제도와 의약위생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신형농촌합작의료(新農合),¹¹⁾ 일로 일소(一老一小),¹²⁾ 무직업주민 고비용질환 의료보험 제도 등을 심화하여 주민들의 의료부담을 덜고, 국비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여 각 지역 국비 의료인원을 전부 기본건강보험체제에 포함함.

■ 낡은 주택단지와 골목, 단층집구역, 도시와 농촌의 접경지대 및 농촌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함.

- 낡은 연립주택 단지의 주택 24,500만 호와 농촌 극빈 주택 6,500호를 개선함.

3) 개혁·개방 촉진

■ 대형 국유기업의 개혁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함.

- 국유기업의 합병과 재편에 박차를 가해 규모와 실력을 갖춘 기업집단 및 핵심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함.

■ 개방형 경제발전 수준을 향상함.

- 외자를 현대적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으로 유치하여 외자도입 구조를 최적화하며, 다국적기업과 민영 대기기업이 베이징에 본부를 설립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기업의 국외 투자와 다국적 경영을 장려함.

■ 수도의 국제화 수준을 높임.

11) 『湖北日報』(2010. 2. 17), 「신형농촌합작의료의 3가지 문제점, 전문가들은 합작이 핵심이라고 지적」.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정부가 조직, 인도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개인, 단체 및 정부가 공동으로 의료기금을 지급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중국 농촌지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음.

12) 베이징시 도시 호구를 가진 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16세 이하 아동, 그리고 노인들이 고비용질환을 치료할 때 소액부분만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도임.

- 국제첨단회의와 전람회 등 대형 행사가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국제기구가 베이징에 설립되도록 노력함.

4. 평가

- 이번 양회(兩會)에서 자동차, 주택 등 사회이슈 관련 세부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음.
- 자동차와 주택소비를 안정시키고 자동차 소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낸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안정시키며 합리적인 소비는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 없었음.
- 일반시민과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저가 임대주택(廉租房),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 가격제한 상품주택(限價商品房) 및 공공임대주택(公共租賃房) 건설을 촉진하여 이들 주택이 베이징시 주택공급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고 함(표 3 참고).

표 3. 각종 일반시민 및 서민용 주택

종류	내용
저가 임대주택(廉租房)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 지급 혹은 임대료 감면의 방식으로 도시의 극빈 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임.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	건축기준을 낮추고 이윤을 줄이는 등 방식으로 건축원가를 줄여 주택 구매가 어려운 시민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주택임.
가격제한 상품주택(限價商品房)	목전 고가 주택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로서, 중간소득 및 저소득 계층에게 판매하는 상품 주택임. 일반 상품 주택과 달리 토지가 양도되는 시점에서부터 주택가격, 건축기준 및 판매대상이 한정됨.
공공임대주택(公共租賃房)	새로이 취업한 대학졸업생 혹은 이주노동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임. 소유권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음.

- 그러나 현재 일반시민과 서민을 위한 주택의 문제는 어떻게 건설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판매하느냐의 문제, 즉 어떻게 저소득 계층으로 하여금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임.

- 대학졸업생의 취업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번 양회(兩會)에서는 대학생들이 창업으로 취업을 해결할 것을 건의함.

- 정부는 창업 촉진 관련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창업훈련이 부족하며 사회적으로도 창업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음.
- 대학생들의 창업난은 적절한 아이템을 찾기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며 사회경험과 기업 관리 경험이 부족한 데에서도 드러남.
- 2009년 베이징시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1만 달러를 돌파하였는바, 이번 양회(兩會)에서는 베이징을 세계도시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었음.
- 이는 베이징시가 국제경제중심, 국제기술혁신중심, 세계문화중심 및 국제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하려는 것과, 외교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정치 발언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베이징은 세계 500대 기업들의 지역 본부 소재지이며, 현재 각종 금융기구가 베이징에 본부를 두는 등 사실상 베이징은 중국 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올림픽 개최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공항의 하나이고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베이징이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 인구와 자원 및 환경 간 모순, 도농간 발전 격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함.
-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직할시 내 진급도시(小城鎮) 건설을 가속화하여 교외지역 도시화를 촉진하고 민생 개선을 강화하며 개혁·개방도 계속 심화해야 함. KIEP